

과정의 아름다움 '만다라'

달라이 라마 동북아시아사무소 한국지부 개소 기념展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서 7월 21일 까지

20여점의 탕카가 내걸린 전시실 한 가운데 놓인 동그란 탁자. 그 위에는 흡사 복잡한 설계도면을 연상케 하는 만다라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5명의 티베트 스님들은 하얀 마스크를 두르고 정교한 문양 사이로 색색의 모래알을 뿌린다. '차퍼(Chakpur)'라는 긴 칼대기 끝을 사각사각 부빌 때마다 고운 색을 입은 모래알이 소리도 없이 도면 위에 내려앉는다. 생각지 못한 움직임에 모래알이 날아갈세라 숨도 잠깐도 모두 죽고 오직 차퍼 끝 모래알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스님들.

달 라이 라마 동북아시아사무소 한국지부 개소 기념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02-733-5322)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조성되고 있는 '모래 만다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연등축제 등의 행사를 통해 소규모 모래 만다라 조성 시연을 선보인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티베트 전통 사원의 스님들에 의해 무려 7일 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형 만다라 제작을 공개한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의 방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모래 만다라 제작.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어떤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 것일까?

초 펠 스님은 15일 열린 모래 만다라 개막전에서 "만다라는 사바세계에서 집합 수 없는 '불보살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달라이 라마는 만다라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믿기도 한다. 그래서 만다라 조성은 단순히 예술작업에 그치지 않는다. 티베트 스님들은 만다라의 도상은 불법을 깊이 이해하고 체화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의 형상을 이루는 작업은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만다라 의식에 앞서 염불과 기도, 그리고 명상이 우선된다. 만다라 그리기 전에 성화(聖化)하기 위한 예식의 일부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도 다람살라 내 규토 사원의 티베트 스님들이 직접 예불을 진행한 이후 만다라 제작 작업을 시작했다. 의식 후에는 여러 도구를 이용해 만다라의 정교한 문양을 연필로 그려 넣었다. 제작에 앞선 의식, 그리고 밑그림 작업이 모두 만다라 조성 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 과정이 전시 개막에 하루 앞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15일 전시장에 다시 나타난 티베트 스님들은 미리 작업한 밑그림 위에 색색의 모래를 채우기 시작했다. 전통 만다라에서는 황금과 산호, 진주 등 적·청·황·녹·백의 다섯 가지 귀한 재료를 썼지만, 요즘은 옥석가루에 색을 입혀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얇고 꺼끌꺼끌한 차퍼의 표면을 쇠파대기로 부비면 그 진동에 의해 칼대기 속의 모래가 조금씩 밖으로 나온다.

색 을 채우는 작업은 21일까지 6일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그 작업이 궁극 목표가 아니다. 스님들은 완성된 만다라를 봉헌하는 예식을 진행한 후, 그 모래를 모두 허물어 버린다. 만다라를 완성한다는 것은 형상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고정되어 불변하는 것은 없다. 아름다움 역시 마찬가지다. 만다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마지막 의식은 그 모래를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만다라 제작 과정을 통해 불보살의 세계에 닿은 모래를 향이리에 담아 강으로 흘려보낸다. 그 모래가 세상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21일 까지 법륜사에서 제작되는 만다라와, 25-29일 봉은사(02-511-6070)에서 조성되는 만다라 모두 강으로 바다로 전해질 것이다. 불교로 실현의 소망은 그렇게 이어진다.

글=강신재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7월 15일 법륜사에서 열린 '모래만다라' 특별전 개막식에서 참석 한 내빈들.



규토사원 스님들이 모래 만다라 제작에 앞서 특별 예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7월 15일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 모래 만다라 특별전에서 만다라 조성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티베트 스님.

관세음보살의 화신, 깨달음을 얻는 수행 과정
황금 산호 등 오색 사용, 불보살의 세계 표현
허문 후 강물에 흘려 보내 부처님 가피 전해



예술·종교 합일 이룬 영화 기대하세요

불교 영화 '살타(殺打)' 제작

불교적 소재를 다룬 영화 '살타(殺打)'가 제작될 예정이다. 불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장연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다음 달 8월초에 크랭크인돼 올 12월 개봉 예정이다. 특히 '파이란' '시월애' 등의 활영을 진행했던 김영철씨가 활영감독을 맡아 더욱 시선을 끈다. '살타'란 제목은 보리살타(菩提薩埵)에서 남자주인공인 특 가수 무진(장연수)은 무진보살, 시각장애인 여자주인공 수련(장신비)은 수련화보살에서 착안했다. 영화 '살타'는 무진과 수련의 비극적 사랑과 주인공들의 전생과 현생의 인연관계를 놓고 무진이 자신의 몸을 등신 불로 산화해 불교에 귀의 한다는 내용.

감독·주연에 장연수씨 문경·금산사 등서 촬영

감독과 주연을 맡은 장연수 감독은 "불교의 본질을 깨닫는 영화를 만들어 볼까"라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기획취지를 밝혔다. 특출한 불자인 장 감독은 <천수경> <금강경> 등을 요일별로 1시간씩 봉독하는 신행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인공 무진의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돈암동 적조사에서 1만 배 기도정진을 하기도 했다.

영화의 주 촬영지는 경북 문경의 '조목원'이며 김제 금산사와 원주 송광사, 구례 화엄사 그리고 일본 오사카에서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제작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영화 '살타'는 무진의 전생 이야기인 임진왜란 당시의 스펙터클한 전쟁사도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제작사측은 밝혔다.

한편 제작을 맡은 '필름 시네라리아'는 7월 14일 대학로 S.H 클럽에서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노병길 기자

소원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구암 합장

불초 소승은 영흥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심만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변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르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변창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스,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한첩 무료 보시합니다.

TEL : 032)886-3586 H·P :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소중인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 山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山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와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山寺 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 山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성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꽃 조청 1.2kg

아열,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를 향상,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기청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세계최대 부처님 열만상

국운옹장,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만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만상이 노천물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만상 발마디에 몸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만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당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살마위에 있는 원적위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곰팡이제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

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천전했음에 자연적으로 3과로 증가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향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제3회 대성사 산사음악회

종교화합의 밤 선남선녀 함께하는 음악회 (천주교 옥천성당 가족과함께)

- 일시: 2005년 9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 #### 불교
1. 보현스님 (부처님마음주지·유명가수)
 2. 지호스님 법고시연
 3. 가수 최은혜 노래교실(대전 유명 노래강사)
 4. 팝오케스트라
 5. 법민스님 승무시연
 6. 불교연합합창단

- #### 천주교
1. 옥천성당 합창단, 청년 합창단
 2. 이노주사(찬양사도)
 3. 김영수신부 그룹사운드
 4. 테릴라 섹스폰 증창단

- 전화: 대성사 043)732-5560 혜철 스님 옥천성당 043)731-9981 오섭 신부님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대전 총북지사
- 후원: 옥천군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청 옥천문화원 옥천농협 옥천영동축협 천주교교방송곡 현대불교신문사 옥천신문 한빛일보 동양일보 충북일보 충북불교총연합회 옥천불교사암연합회